



민주주의의 실천 광장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글 · 홍인기 icwriters@hanmail.net
사진 · 황석선 stonesok@demo.or.kr

저항과 투쟁의 무대

광장은 민주주의와 운명을 함께 해왔다. 해방 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1960년 4·19 혁명.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된 그 날의 광장은 당시 태평로에 있던 국회 의사당 앞이었다. 대학생들은 의사당 앞에 모여 '부정선거 다시 하라! 민주주의 수호하자!' 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가 국회 의사당을 거쳐 경무대(지금의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은 이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이 때 광장은 피로 얼룩졌다.

1970년대는 광장이 사라진 시대였다. 박정희 유신정권은 긴급조치를 앞세워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폭력으로 손발을 묶었다. 시위와 집회는 저지선이 따로 없었고, 대학생들은 학교정문 밖 진출을 꿈도 꾸지 못했다. 사복경찰은 강의실에도 들어와 있었고, 교정에서조차 무리지어 있는 학생들은 공권력의 표적이 되었다. 경찰의 저지선이 학교 담장을 넘어 도심으로 확대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다. 박정희가 측근에게 살해당한 뒤 찾아온 1980년 서울의 봄. 그 짧은 희망이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으로 물거품이 되자,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그를 규탄하기 위해 중앙도서관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모였다. 모인 학생 수가 1만 명이 넘었다. 그 규모에 놀라 서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다.

아크로폴리스는 '민주'를 상징하는 광장이다. 고대 희랍의 아크로폴리스가 민주주의의 시연장이었다면, 서울대 아크로폴리스는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저항과 투쟁의 실천 무대였다. 특히 서울대가 관악 캠퍼스로 이전한 1975년 이후 80년대와 90년대의 아크로폴리스 광장은 군사독재권력과 싸워 민주와 통일을 부르짖으며 몸과 혼을 불태운 학생운동의 성지이며 역사의 현장이다.

1980년 5월 민중항쟁을 총칼로 제압한 전두환의 신군부는 감대중을 비롯한 문익환, 고은 등 민주 인사 37명을 계엄법, 반공법, 국가보안법이란 근거를 들어 내란음모(1980.7.4)죄로 구금했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8월 27일, 마침내 그들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을 11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후 전두환은 국민투표(10.23)를 거쳐 5공화국 헌법을 만들고, 27일에는 국회를 해산,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발족하여 법적 조

로 물거품이 되자,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그를 규탄하기 위해 중앙도서관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모였다. 모인 학생 수가 1만 명이 넘었다. 그 규모에 놀라 서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다.



치들을 마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정치풍토쇄신 특별조치법', 국가보안법 등을 개정하거나 제정했다. 피와 학살을 주저하지 않는 그의 이러한 야만적 권력욕 앞에 민중은 절망하거나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뜨거운 함성이 일었다. 외침은 처절했으며, 그 핏빛울림이 민주와 통일의 꽃망울이 되어 관악을 흔들고 조국의 산하를 덮기 시작했다. 서울대 아크로폴리스는 그 무렵부터 주요 정치적 국면 때마다 저항과 투쟁의 진원지가 되었다. 학생운동의 리더는 물론 문익환 목사 같은 재야인사들도 수시로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수배, 구금의 길을 밟았다. 당시 아크로폴리스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위험을 감수하는 공간이었다.

아크로폴리스가 목격한 수많은 열사의 죽음과 외침

"그때는 뒤로 보이는 저 도서관의 난간이 운동 쇠창살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만난 고원(45) 씨는 1984년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2학년으로 학생회 간부로 활동했다. 그가 상기된 얼굴로 중앙도서관을 가리켰다. "지금은 광장이 이렇게 조경이 되어 있지만, 제가 다니던 1980년대 중반엔 장미가 뽀뽀 심어져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 하지요. 전두환이 집권하고 한때 학원자율화니 뭐니 유회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거짓 정책이었는데 누가 다 아는 사실이었지요."

음울한 캠퍼스에 피어난 붉은 장미들, 그 기막힌 부조화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듯 보였다. 학생들이 모이는 자체를 두려워한 학교 측의 고육책이었을 것이 분명한데, 어쨌든 그것은 장미의 가지처럼 학생들의 정신을 찢러 상처를 냈을 것이었다.

1983년 12월 21일 전두환 정권은 5·17이후 제적된 학생들에 대한 복교허용조치를 발표했다. 전정권이 탄압 일변도의 강경책에서 이른바 '학원자율화'라고 불리는 유회책으로 정책을 변경한 데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영향이 컸다. 인권탄압국가라는 이미지로는 전 지구적인 잔치를 치를 수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강경책으로도 더 이상 학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5·17이후 1983년 12월까지 학원 사태로 제적당한 학생은 전국 65개 대학, 총 1천 3백여 명이였다. 이는 유신 7년 동안 786명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숫자였다. 1983년 한 해만 327명에 달했다. 전두환 정권은 무언가 정책의 전환을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학원자율화조치는 1984년 벽두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제적생들이 학교별로 복교대책위



"지금 후배들은 대부분 이 광장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끝없는 경쟁을 강요하는, 시민적 윤리와 공적 덕성이 무너지고 황폐해 버린 이 시대를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따라가는 무책임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야지요."



고원(오른쪽) 씨가 아크로 폴리스 광장과 중앙도서관 사이에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를 구성하여 복교에 앞서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재학생들은 학원자율화조치로 열린 공간을 이용하여 학생운동의 대중적 기반 확산에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1984년 10월 24일 서울대에서 총학생회장 이정우 등을 제명 조치한 것에 항의하여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거부하자 전두환 정권은 다시 경찰을 학내에 진주시켰다. 이것으로써 이른바 학원자율화조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학생회를 지키기 위해 운동권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까지 참여해 저항했습니다. 수천 명이 넘게 운집하곤 했습니다. 곳곳에 들어와 있던 사복경찰들을 피해 자연대 건물이나 학생회관 도서관 난간에서 선언문이나 구호들을 뿌리고 내걸었습니다. 그때 이 광장의 장미를 뽑았습니다. 뽑고, 던지고…… 모였습니다.”

고원 씨가 느닷없이 그때를 떠올리며 낮게 그러나 북받치듯 운동가를 불렀다.

**자기꽃 만발한 아크로폴리스
외항을 둘러싼 면학의 도서관
젊은 넉스래끼고 그때 그 자리
상처입은 노동은 말을 잊었나
학우여~ 둘러싸고 성난 목소리!
학우여~ 보았는가 한 맺힌 눈동자!**

1986년 3월 18일 서울대에서 반전반핵평화옹호투쟁위원회(반전반핵투위)가 결성되었다. 반전반핵투위는 결성대회에서 “반전반핵 양키 고 홈”, “친미독재 타도하고 미



1980년대 도서관에 앉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행동하지 못한 일에 부끄러워했다. 그것은 그 시대 청년들의 전반적인 의식이기도 했다.

제국주의 몰아내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대중 집회에서 반미구호가 터져 나온 순간이었다. 그해 서울대 자민투(반미자주화반과쇼민주화투쟁위원회)는 2학년 학생들의 전방입 소훈련을 미 제국주의의 용병교육이며 식민지 노예교육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거부 투쟁에 나섰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이재호(정치학과), 김세진(자연대 미생물학과) 열사가 경찰의 진압에 항의하며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했다.

그해 5월에는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거행된 5월제 개막식 도중에 농대 원예과 이동수(원예과 1학년) 열사가 학생회관 4층에서 온몸에 불을 붙인 채 ‘미제는 물러가라! 경찰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투신했다.

학생운동사, 그 절규의 시간들

1980년 5월의 실패를 겪으면서 학생들은 노동자, 농민 등 생산 대중이 투쟁의 주역이 되지 않는 한 민주화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했다. 많은 학생들이 노동자들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분을 버리고 노동 현장으로 달려갔다. 시위 주동으로 감옥을 살고 난 뒤 노동현장으로 직행하는 것이 운동의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한 지원투쟁도 강화되었다.

1982년 10월 원풍모방 노조사수투쟁에 학생들이 동참하면서 시작한 학생들의 민중생존권 지원투쟁은 84년 청계피복노조 합법성쟁취투쟁, 목동철거반대투쟁, 85년 6월 구로동맹파업 등에서도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특히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어 노학연대투쟁은 새로운 투쟁의 양



선배들이 겪은 아크로폴리스 광장의 역사를 알리 없는 08학번 새내기들이 학교 공간을 둘러 보고 있다.

식으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 학생운동은 격동의 10년이었다. '민주화의 봄'의 환상과 꿈직했던 광주학살의 기억 그리고 6월항쟁으로 가기 까지 수많은 학생들의 투신, 분신, 의문사, 구속, 수배, 고문, 1987년 뼈아팠던 선거 패배의 기억, 이후 전개된 통일투쟁, 세계 어느 나라의 운동사에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가열찬 투쟁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운동은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확립했다. 6·29이후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가 일정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자주와 통일이 점차 학생운동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갔다.

“지금 후배들은 대부분 이 광장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끝없는 경쟁을 강요하는, 시민적 윤리와 공적 덕성이 무너지고 황폐해 버린 이 시대를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따라가는 무책임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야지요.”

런 뜻에서 고원 씨는 교내에 민주화의 길을 조성하고 민주화 인사의 기념물을 제작·정리하는 한편 '서울대 민주화운동사'를 발간하는 등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선포한 학교 측에 기대를 표했다.

취재를 마치고 캠퍼스를 나오면서 나는 아크로폴리스로부터 분명한 외침을 들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글·홍인기 1960년 출생. 소설집『숲의 기억』이 있으며, 한국작가회의와 인천작가회의, 리얼리스트100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계훈제선생님 9주기 추도식 안내

억압과 차별이 완화되고 인간적 정이 넘치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정의로워진 나라를 이룩하는데 큰 기여를 하신

민주화운동의 훌륭한 지도자
계훈제선생님의 9주기 추도식을 맞아

각 곳 삶의 현장에서
나라와 겨레의 발전을 고민하고 계시는

모든 님들을 모시고
그 정신을 면면이 이어가고자 합니다.

- 일 시 : 2008년 3월 14일(금) 12시
- 장 소 : 마석 모란공원 계훈제 선생님 묘소
- 교 통 편 : 3월 14일 오전 10시
예화동 흥사단 앞에서 버스 출발
- 모시는 이들 : 계훈제선생님 추도식 준비모임
- 연 락 처 : 아름다운세상지킴이(arumi.org/아름이)
윤여연(016-419-2048/신한은행 110-235-531602)